

에드먼튼 한인침례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임]

- 수요일 기도회가 저녁 7시 교회에서 있습니다.
- 목요일 중보기도회가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 다음 주는 온 가족 한 마음 예배로 드리며, 주의 만찬이 있습니다.

[알림]

- **공동체 성경읽기 365 플랜 제 45 주 차**
- 11월 가정예배 순서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교회 홈페이지).
- 11월 18일(토) 12시, 연합 목장모임이 있습니다(전남형, 류성주 집사).
- 11월 26일(주) 예배 후 기질 발견 세미나가 있습니다.
- 에드먼튼 교회 및 교역자 협의회가 주관하는 세계 평화를 위한 성탄 기도집회가 12월 9일(토) 저녁 7시 에드먼튼 제일장로교회에서 있습니다.
- 교회 도서관을 위한 도서 기증 및 후원(성경, 신앙서적, 어린이/청소년 서적 등)에 감사합니다.

[담임목사 동정]

- 11월 20일(월) 미주 한인 남침례회 캐나다 중부지방회 정기회, 모라비안 교회
- 11월 25일(토) Church Planting Conference, Edmonton.

[모라비안 교회]

- 12월 3일(주) 12시, 대림절 Fellowship
- 12월 24일(주) 저녁 7시,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

[중보기도(기도제목이 있으면 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몸의 회복을 위해 : 김정현, 장문수(장은정), 장정운
- 11월의 기도제목을 위해
- 대한민국과 캐나다를 위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이스라엘을 위해
-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시리아, 모로코를 위해, 홍수 피해를 입은 리비아를 위해

11월 기도제목

- ◆ 에드먼튼 한인침례교회의 영적, 질적, 수적 부흥과 성장을 위해
- ◆ 하나님의 임재로 은혜와 감격이 있는 예배를 위해
- ◆ 뜨거운 기도와 찬양이 삶과 가정과 교회에 회복되기를 위해
- ◆ 말씀을 읽고 나누며 함께 예배하는 가정이 되기를 위해
- ◆ 자녀들의 신앙, 인격, 건강, 학업, 만남, 비전을 위해
- ◆ 영혼 구원에 열정을 가진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 ◆ 장종섭 교육목사님 청빙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기를 위해
- ◆ 김창섭, 양영창 선교사님의 건강과 사역, 가정과 자녀를 위해
- ◆ 11월의 목회일정(주일예배, 수요일기도회, 기질 세미나, 목장 모임, 문화사역)을 위해

모임안내

주일예배	오후 2시	본당 / Zoom
어린이예배	오후 2시	소예배실
청소년모임	오후 1시	청소년부실
수요기도회	저녁 7시	본당 / Zoom
중보기도회	저녁 7시 30분	지정 장소
성경아카데미	지정 시간	교회 / Zoom
목장모임	지정 시간	지정 장소

11월 목회계획 (성숙의 달)

18일(토)	연합 목장 모임
19일(주)	온 가족 한 마음 예배
26일(주)	기질 발견 세미나
	문화 사역

11월 예배 봉사자

날짜	기도	성경봉독	친교
5일	김준희	김영순	권용미
12일	권용미	임혜영	여선교회
19일	류성주	권용미	전혜정
26일	김성실	이광배	조진실

지난 주 헌금 통계

(E-transfer: edmkbc@gmail.com)

항목	통계
십일조	1,167.18
감사헌금	40.00
주정헌금	775.00
선교헌금	20.00
기타헌금	320.00
계	2,322.18

섬기는 이

담임목사 : 권성범
 반 주 : 김안나
 방송담당 : 김태빈



주여 부흥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망을 두고 돌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라내서옵소서 이는 주의 종이라도 공물을 함께 마옵소서 (삼 7:2)

2시

*경배와 찬양 <i>Praise and Worship</i>	18.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3.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2. 교회여 일어나라 23. 임재	다같이
*예배의 부름 <i>Call to Worship</i>	시 100:1-5	인도자
*찬송 <i>Hymn of Praise</i>	199. 나의 사랑하는 책	다같이
대표기도 <i>Congregational Prayer</i>		권용미 집사
성경봉독 <i>Scripture Reading</i>	히 4:1-16	임혜영 집사
말씀선포 <i>Sermon</i>	히브리서 강해(8) 우리에게 계신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권성범 목사
결단찬양 <i>Praise Song</i>	주는 완전합니다	다같이
교회소식 <i>Welcome & Announcements</i>		인도자
*주기도송 <i>Lord's Prayer</i>		다같이
*축도 <i>Benediction</i>		권성범 목사

*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설교 전, 오늘 본문 히 4:1-16 을 읽고 묵상합니다.

Before the sermon, read and meditate on today's Scripture.

By 백흥영(공명교회 목사)

구분	주제
4:14-10:18	그리스도의 사역의 우월성 The Superiority of Christ's work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그의 생애 중에 몸소 다 겪으셨지만, 그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흠을 알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Jesus, our great high priest, has experienced all our weaknesses in his life, yet he did not sin against God because of his weaknesses. Therefore, we must come to the throne of grace, relying on Jesus Christ, who knows all our weaknesses and blemishes, to receive God's compassion and grace to help us.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야 하는 세 가지 이유

Three reasons we should come to the throne of grace.

- 1.
- 2.
- 3.

성도가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What is the basis for a saint to come before God's throne of grace?

은혜의 보좌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긍휼과 도움을 간구할 일은 무엇인가요?

What are some things I can do before the throne of grace to ask for God's compassion and help?

코로나 19 라는 팬데믹이 기독교 가정의 위기를 가속화시켰다. 미래학자이자 기업가인 제이미 메츨(Jamie Metz)은 코로나 19 가 미래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메츨의 이야기처럼 팬데믹 이후 종교 영역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지금껏 가정이 깊어져야 할 자녀 신앙 양육의 책임을 상당 부분 교회에 위탁하고 있었는데, 그 길이 막히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숨겨 두었던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절망하기에는 이르다. 오히려 코로나 19 는 교회와 가정의 부모에게 성찰의 기회를 제공했다. 코로나 19 이전까지만 해도 가정에서 신앙 교육의 중요성이 주목받지 못했는데, 코로나 19 가 그 필요성을 절실히 체감케 한 것이다. 코로나 19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다음세대 양육의 거점은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 되었다. 자연스럽게 교회는 가정으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다. 2022 년 4 월, 목회 데이터연구소 통계에 따르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교회학교 준비 사항 1순위로 ‘자녀 신앙을 위한 부모 교육’으로 나타났다. 통계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2022 년 11 월 목회데이터 연구소 통계를 보면 코로나 19 이후 30, 40 세대 중 약 43%가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30, 40 세대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다음세대인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19 시대를 경험하면서 교회와 가정 모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코로나 19 로 인한 다음세대 교육의 대안으로 가정 안에서의 신앙 교육이 대두되어서는 안 된다. 원래부터 다음세대 신앙 전수는 가정에서 부모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었다. 그렇기에 우리는 신앙 교육의 주체가 부모였음을 다시 인식하고, 놓치고 있었던, 아니 뒷짐 진 채 교회에 맡기기만 했던 다음세대 신앙 전수를 어떻게 하면 가정에서 잘 진행할 수 있을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사실 다음세대 양육의 거점은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다. 가정이 자녀 신앙 양육의 조력자에서 주체자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교회는 움켜쥐고 있던 혹은 움켜질 수밖에 없었던 주도권을 부모(주 양육자)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부모의 사명

신명기 6 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 교육해야 하는지 말해 주고 있다. 한마디로 부모는 게이트 키퍼(GATE KEEPER)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게이트 키퍼’란 커뮤니케이션의 관문을 지키는 사람이란 뜻으로 뉴스나 정보의 유출을 통제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즉 가나안 문화에 물들지 말고 자녀들이 하나님만 따를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라는 것이다. 그것이 부모의 사명이다.

마틴 루터도 부모는 하나님으로부터 양육의 책임을 위탁받은 대리자임을 강조했다. 그렇기에 부모는 가정 안에서 예배 인도자로 살아야 한다.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렸듯이 부모가 언제나 가정에서 예배자의 본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난 후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삼손의 부모인 마노아가 삼손이 태어나기 전부터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할 것인지들 하나님께 물었던 것처럼, 부모는 자녀의 삶의 주기에 따라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완벽한 부모는 없다」의 저자 폴 트립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부모를 허락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다. 부모는 그 사명에 응답해야 한다.

[성경: 에스겔 3:1-20:49] 날짜: 이름:

▣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1.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무엇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고 하셨나요? (겔 3:)

2.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머리털과 장발을 깎아서 각기 예언으로 실행토록 한 그것은 곧 누구라고 하셨나요? (겔 5:)

3.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다음 각 사람은 어찌된다고 했나요? (겔 7:) 1)선지자- 2)제사장- 3)장로-

4. 이상 중에 하나님께서 가는 벼웃을 입은 서기관의 먹 그릇 찬 사람을 불러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어떻게 하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고 했나요? (겔 9:)

5.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거민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무엇을 준다” 하셨나요? (겔 11:)

6. 하나님께서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들에게 화가 있을진저”라고 하시며 그들을 무엇과 같다고 하셨나요? (겔 13:)

7. 하나님께서는 “내가 수풀 가운데 포도나무를 붙에 던질 화목이 되게 한 것같이 누구도 그같이 할지라”고 하셨나요? (겔 15:)

8. “여호와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우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줄 알리라”고 하시면서 여호와와는 어떻게 하신다고 가르치나요? (겔 17:)

9. “너희는 범한 죄악을 버리고 무엇을 새롭게 할지어다”고 하셨나요? (겔 18:)

10. ‘바마’는 무슨 뜻인가요? (겔 20:)